

연이은 장마·태풍에 농산물값 '훌쩍'...추석물가 '비상'

제수용 사과, 30%↑·배추는 2배 비싸도 선물세트 판매량은 '활발' 거리두기·김영란법 일시 완화 덕

역대 최장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뛰면서 추석 상차림비가 예년에 비해 많이 들 전망이다.
곳은 날씨에 농작물 생육이 나빴고, 고향을 방문하는 대신 선물세트로 대신하는 수요가 늘며 수산·축산물값도 훌쩍 뛰었다.
15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올 과일 선물세트의 경우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 5000원에서 1만원 가량 오른 상태다.
특히 제수용으로 쓰이는 대과(大果)가 부족한 실정. 실제 aT의 농산

물 가격정보를 보면 14일 기준 사과(홍로) 10개의 소매가격은 약 3만원으로, 2만2700원 수준인 평년에 비해 32% 넘게 올랐다.
배추 한 포기는 1만원을 웃돌아 5000원 수준이던 평년의 2배, 시금치(1kg)는 약 1만8000원으로 평년(1만3000원)보다 38% 더 올랐다.
육류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정에서 소비가 늘면서 올 들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선물세트에 많이 들어가는 한우 등심은 1만2000원으로 10%, 국거리로 많이 쓰이는 한우 양지는 100g

당 7748원으로 8% 가량 상승했다.
물가정보기관인 한국물가협회의 조사를 보더라도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21만9100원)보다 9.5% 상승한 23만9900원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채소는 상대적으로 생육기간이 짧아서 다행이지만 과일들의 경우 장마가 길어져 일조량이 부족해 잘 자라지 못하고, 상품화 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격은 비싸지만 수요가 평년보다 늘면서 유통업체의 사정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향 방문을 꺼리는 대신 선물세트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탁금지법(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상한액을 명절 기간에 한해 한시적으로 상향(10만원→20만원)하기로 하면서 선물세트 판매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업체 관계자는 "고향에 가는 사람이 줄면서 소비자들이 선물에 비중을 많이 두는 모습을 보여 대형마트들이 10만원~20만원대 세트의 물량을 20% 가량 늘려놓은 상태"라며 "권익위 발표 이후 굤비세트 등이 더 잘 나갈 것으로 예상돼 물량확보를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전엔 5만~10만원대의 과일세트가 잘 나갔다면, 지난 주말 판매 데이터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10만원 넘는 축산, 수산 카테고리에서 신장률이 높았다"고 전했다.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10만원 이상의 추석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완화 조치했다.

김민정기자

소상공인·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산업부, '실물경제 점검 회의'서 지원 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전기 요금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씩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제2차 실물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전기 요금 지원 방안을 내놨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 연장은 지난 4월에 이어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당시 4~6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에 대해 약 48만6000가구가 납부 유예를 신청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상자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대상자가 포함된다.
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가 부과

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균등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내년 6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이는 요금 부담이 일정 기간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납부 유예를 원하는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는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관할 도시가스 콜센터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달부터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구서에 적힌 납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9월30일까지인 경우 이날 전까지 신청해야 9월 요금 청구분부터 납부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 시에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는 따로 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센터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도시가스사는 자격이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구할 예정이다. 만약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못

하면 납부 유예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납부 유예 제도도 3개월 연장된다. 이를 통해 오는 10월, 11월, 12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기한이 3개월씩 미뤄진다.
해당 대상은 전국 소상공인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상자자 등 주택용 복지 할인 가구다.
이미 관련 혜택을 받고 있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장 적용된다.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 없이 123)를 통해 할 수 있다.
계약전력 20kW 이하 소비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초과하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전력은 전력 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저압전력 사용자를 발굴해 계약 전력 변경 제도를 설명하고 기본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계약전력이 10kW인 소비자가 전력 사용량 감소를 반영해 계약전력을 5kW로 줄이면 한 달에 약 3만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 단, 계약전력을 낮춘 이후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력을 사용할 경우 초과 사용 부과금이 나올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가 포함된 9~12월 요금에 대한 납부 유예가 4~6월 요금에 비해 실질적 지원 효과가 높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봉우기자

'애플·넷플릭스 투자'...한투증권, 'Z세대플렉스랩' 출시

글로벌 트렌드 주도하는 세대들이 주로 FLEX하는 아이템 주목하는 취지



한국투자증권은 15일 Z세대와 밀레니얼세대의 소비 트렌드를 대변할 수 있는 애플, 넷플릭스 등에 투자하는 '한국투자Z세대플렉스랩'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19 이후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세대들이 주로 FLEX(소비)하는 아이템을 주목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중장기 기술 패러다임을 주도하면서 업종 내 높은 브랜드 가치를 지닌 생활 밀착형 기업을 중심으로 종목을 선별한다.
핵심 운용전략은 종목당 20% 비중으로 일주일간 2회 분할 매수한다. 고객이 지정한 목표수익률 달성시 포트폴리오 비중을 30% 이내로 축소해 수익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랩이다.
이준재 투자상품본부장은 "자기만족을 위한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소비자 시장이 주도하는 시기"라며 "Z세대가 글로벌 소비 시장을 주도하는 변화에 주목하자"고 밝혔다.
최소 가입금액은 3000만원이며, 은행외화예금 송금을 통한 미국 달러(USD) 입금도 가능하다. 가입은 한국투자증권 전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정승호기자

코로나 19 이후 제주 골프장 이용객 8% 늘어

8월까지 144만4388명...작년보다 10만명 이상 증가

제주도 골프장이 이른바 '코로나 19 특수'를 누리고 있다. 해외 골프 여행길이 막히면서 수요가 몰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8월까지 도내 골프장 이용객은 144만438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133만7530명보다 8% 늘어난 수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3월 도내 골프장 이용객은 14만2595명을 기록하며 전년(16만8743명) 대비 15.5% 줄었다.
4월에는 19만5106명이 찾아 전년(19만4630)보다 0.2% 소폭 늘었다.
이후 5월에는 지난해 21만8500명에서 올해 19만2717명으로 다시 11.8% 감소했다.
특히 6~8월 여름휴가 기간에는 도내 골프장 이용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도내 골프장 이용객은 6월부터 23만2580명, 22만8599명(7월), 23만6836(8월)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비 각각 13.9%, 37.9%, 30.6% 증가한 수치다.
제주도 관계자는 "여름 휴가 기간 해외 골프 여행길이 막히면서 이 수요가 국내로 몰리면서 제주도 골프장뿐만 아니라 전국 골프장에 이용객이 몰리고 있다"며 "골프장 예약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 전화까지 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동취재본부

코픽스 또 사상 최저...주담대 금리 더 떨어질 듯

신규취급액 코픽스 0.80%~0.01%p↓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또 다시 하락해 0.80%를 기록했다. 역대 최저치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8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80%로 7월(0.81%)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9개월 연속 내림세다. 같은 기간 잔액 기준 코픽스는 1.35%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내려갔다. 신(新) 잔액 기준 코픽스도 1.07%를 기록해 전월 대비 0.04%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7월 첫 공식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

고 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KB국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이 지난달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해 잔액 기준보다 시장금리 변동을 신속하게 반영한다.
잔액 기준 코픽스와 신 잔액 기준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



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전환사채 제외)가 포함된다.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여기에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과 결제성자금 등이 추가된다.
은행연 관계자는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코픽스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연욱기자

기능성 모발 제품 개발 '비셀', 9월의 A-벤처스 선정

농산물 미용에 접목...'케라틴 워터 헤어팩' 개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의 A-벤처스로 농산물을 활용해 기능성 모발 관리 제품을 개발·판매하는 주식회사 비셀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비셀은 천연소재 추출 기술과 자체 노하우로 '케라틴 워터 헤어팩'을 개발, 단기간에 사업화 하는데 성공했다. 농산물을 단순 가공이 아닌 미용(모발 관리) 분야에 효율적으로 접목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였고 창업 1년 만에

매출 6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비셀은 농산물을 모발과 두피의 잔류독소 배출에 효과적이고 모발을 더욱 검게 하는 성분을 추출하는 기술을 이전받아 모발 관리 제품을 개발하는데 활용했다. 또 '천연 케라틴 고온(900~1300℃) 추출' 성분이 모발 손상 부위에 신속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했다. 비셀의 우뚝한 대표는 "혼자 나



아가기보다 다른 기업과 소통체계를 구축해 협력하고 향후 K뷰티의 세계화에도 앞장서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